

PC온라인·모바일게임, 글로벌 시장 공략 ‘무한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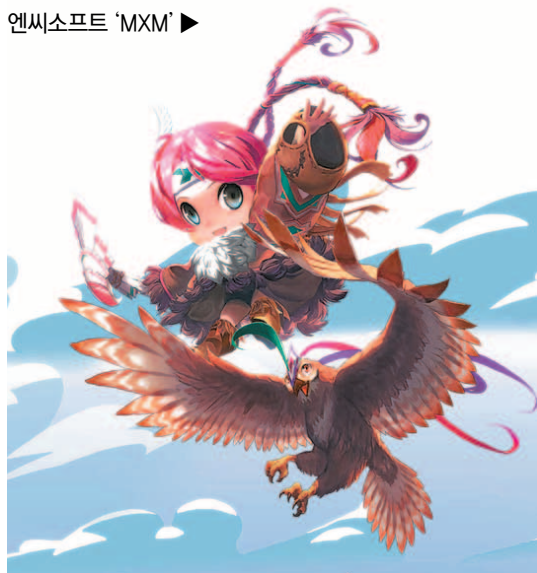


2015년 주목해야 할 게임

2015년 국내 게임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다양한 블록버스터급 기대작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침체기였던 PC온라인 부문이 부활 청신호를 발할 전망이다. 또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이 모바일게임시장과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플랫폼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주목해야 할 국내의 주요 게임사와 전략,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알아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엔씨소프트 ‘MXM’ ▶



▲ NHN엔터테인먼트 ‘더소울’



▲ 네시삼십삼분 ‘마피아’

엔씨소프트

‘리니지 이터널’, 전설이 다시 시작된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 PC온라인 부문에선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은 물론이고 캐주얼게임도 선보인다. 여기에 대세로 자리 잡은 모바일게임 신작도 그 베일을 벗는다. 이밖에 새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도 나선다.

●PC온라인 캐주얼부터 MMORPG까지 ‘풍성’

PC온라인 부문에선 먼저 ‘엔씨퍼’ 캐주얼게임을 만나볼 수 있다. 올 상반기 2차 테스트를 준비 중인 ‘MXM’이 그 주인공이다. 밝고 가벼운 느낌의 슈팅 액션 장르다. 무엇보다 기존 엔씨소프트의 인기 게임 내 캐릭터가 등장해 친근한 재미를 준다.

올해 최고 기대작인 ‘리니지 이터널’도 비공개 테스트를 통해 게이머를 만난다. ‘리니지’ 시리즈와 ‘아이온’, ‘블레이드&소울’을 잇는 대형 MMORPG다. 17년 동안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리니지 시리즈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다. ‘지스타2014’를 통해 시연 버전을 공개해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사전 테스트를 계획 중이다.

●대세의 모바일게임도 다수 출격대기

엔씨소프트는 올해 자체 개발한 모바일게임 신작도 다수 선보인다. 기존 글로벌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블소 모바일’과 ‘아이온 레기온즈’ 뿐만 아니라 ‘패션 스트리트’로 새로운 소재의 소셜네트워크게임(SNG) 장르에 도전한다.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는 모바일 야구시뮬레이션게임 ‘프로야구 육삼공’과 골프게임 ‘팡야모바일’ 등 3종의 캐주얼 게임을 내놓는다.

특히 24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프로야구 육삼공’이 관심을 모은다. ‘프로야구 매니저’를 ‘박히트’시킨 엔트리브소프트의 첫 모바일 야구시뮬레이션게임이기 때문이다. 유저는 실제 경기를 옮겨 놓은 듯한 정교한 시뮬레이터 안에서 쉽고 가볍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지난 테스트를 통해 선수 카드 모으기와

빠른 경기 진행 방식, 추천 선수와 팀 시스템 등이 호평을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모바일게임 1위 업체인 넷마블게임즈와 공동사업 및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각사가 보유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IP에 기반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웹툰부터 드론까지’ 새로운 시도 강화

지난해부터 이어온 새로운 시도도 더 속도를 낸다. 2월 전자결제기업인 KG이니시스로부터 4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다. 뜨거운 감자인 핀테크(FinTech) 사업의 혁신적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엔 드론 개발사 바이로봇에 약 15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드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바이로봇과 신기술에 대한 중장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게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1월 도통치게임즈에 자본투자를 단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노브에 5억원을 투자했다. 또 지난해 웹툰과 게임 IP 확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레진 엔터테인먼트에 5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양사 콜라보레이션 결과로 지난해 12월 ‘블레이드&소울: 주술사의 탄생’을 연재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 ‘리니지 이터널’ 여성 캐릭터

NHN엔터테인먼트

‘더소울’, 삼국 영웅들의 영혼을 깨워라

NHN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게임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원빌드’ 전략을 강화한다. 해외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역할수행게임(RPG) ‘크루세이더 퀘스트’에 콘텐츠를 추가하는 한편 액션RPG ‘더소울’의 글로벌 출시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린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원빌드’ 첫 성공 사례 ‘크루세이더 퀘스트’

지난해 말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 출시한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초기 콘솔 명작 게임을 연상케 하는 픽셀아트 그래픽과 3배치 방식의 독특한 물, 탄탄한 스토리로 호평을 받았다. 최근 5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특히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체 매출 중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매출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이용자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북미 지역 반응이 좋은데, 미국 구글플레이에선 무료 인기 순위 10위를 기록할 만큼

이용자 지표가 두드러진다.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만큼 매출 기여도 또한 높다. 싱가포르와 태국,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최근 대만어 버전을 출시하면서 일일이용자수가 30%가량 늘었고, 신규 이용자수도 300% 이상 급증했다. 이는 NHN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원빌드 전략의 첫 성공 사례로 꼽힌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추가로 게임의 흥행 열기를 이을 계획이다. 최근 총 24개의 신규 스테이지를 선보인 ‘북풍의 기억’은 새로운 스토리로 재미를 더해 준다. 아울러 ‘기상 변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전략적 재미도 더했다. 크루세이더 퀘스트는 상반기 중 일본어 버전 출시도 예정하고 있어 글로벌 흥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액션RPG ‘더소울’로 연타석 홈런 노린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원빌드 전략을 통한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다음 카드로 액션 RPG 더소울을 꺼내들었다.

진나라를 배경으로 혼령으로 깨어난 삼국시대 영웅들에 맞서 전투를 펼쳐나가는 탄탄한 스토리와 방대한 콘텐츠를 담았다. 지난해 12월 국내 이용자들에게 먼저 첫 선을 보였다. 이용자가 원하는 스킬을 자유롭게 장착하는 독창적 ‘혼카드’ 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으며 출시 직후 구글플레이 인기 무료 애플리케이션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앱스토어에서도 무료게임 2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모았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더소울을 올해 상반기 내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 150여개국에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3월말에는 정식 출시 전 타깃 국가를 정해 별도프로모션 없이 게임을 오픈하는 소프트런칭을 진행하고 현지 이용자들의 반응을 살필 예정이다. 주요 타깃 국가에서는 철저한 언어 현지화 과정을 거쳐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한다.

글로벌 원빌드 게임이기는 하지만 주요 국가에 대한선 이용자 성향을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북미지역에는 한국 버전과는 조금 다르게 월드맵을 강조하는 등 현지 이용자 성향을 반영한 사용자환경(UI)을 적용한다.

네시삼십삼분

‘마피아’, 세상에 없던 모바일 FPS의 진수

모바일게임의 강자 네시삼십삼분은 올해 ‘돌격전차’를 시작으로 ‘마피아’와 ‘프로젝트SF’, ‘TT레이서’(이상 가제) 등 다양한 신규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찾아보기 힘든 장르와 재미로 무장한 게임들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활’과 ‘회색도시’, ‘블레이드’ 등 새로운 장르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시장의 고정개념을 깬 ‘도전’과 ‘실험’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돌격전차·마피아 낯설고 새로운 재미 갖춰

네시삼십삼분은 2015년 첫 신작으로 ‘돌격전차 for Kakao’를 선보였다. 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돌격전차는 ‘낯선 재미’를 추구하는 퓨전 역할수행게임(RPG). 최신 유행과 달리 2D원화를 바탕으로 슈팅과 디펜스, 캐주얼RPG를 맛깔나게 섞었다. PC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 기획팀장과 ‘버블파이터’ 총괄PD를 지낸 서동현 셀러드블 대표의 첫 모바일게임이

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뭉쳐다 흠여지기를 반복하며 적을 공격하고 각종 제어스킬로 모바일에서 몰이사냥을 구현하는 등 눈을 뗄 수 없는 슈팅액션의 쾌감에 이용자들의 폭발적 반응이 나왔다.

최근 갱스터 무비를 방불케하는 티저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마피아는 네시삼십삼분의 실험정신이 극대화된 게임이다. 우선 장르가 일인칭슈팅(FPS)이다. ‘서든어택’과 ‘스페셜 포스’로 대변되는 FPS는 PC온라인에서는 단단한 유저층을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그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네시삼십삼분도 지난해 모바일 FPS게임 ‘샌드박스 for Kakao’를 출시해 인기 1위와 매출 20위권대 진입 등 유의미한 성적을 보였지만, 결국 실험작이라는 평가에 그쳤다. 그럼에도 네시삼십삼분은 마피아의 흥행을 자신하고 있다.

스토리부터 다르다. 마피아는 1920년대 금주법이 시행된 미국 뒷골목을 배경으로, 대부 알카포네 등 당시 범죄 조직을

주름잡던 마피아들의 전쟁, 사랑, 추격전 등을 담았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모바일 FPS게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혁신을 담았다는 것이 네시삼십삼분 관계자의 설명이다.

●프로젝트SF·TT레이서 또 다른 혁신

네시삼십삼분의 도전과 실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업계의 이목을 모았다. ‘그래픽이 좋지 않다’ ‘모바일에서 실시간 대전(PVP)은 불가능하다’는 평을 뒤로하고 성공한 활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에서 비주얼 노벨은 시기상조’라는 전망을 뒤집은 회색도시, ‘용량이 크다’ ‘자동사냥을 뺀 RPG는 모바일서 성공하기 어렵다’ 등의 편견을 극복한 블레이드 등이 있다. 또 ‘뻔한 RPG라 성공할 수 없다’는 우려를 씻어낸 ‘영웅’도 있다.

네시삼십삼분은 올해 돌격전차와 마피아 외에도 TT레이서와 프로젝트SF 등 기존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3·4호로 진행 중인 TT레이서와 프로젝트SF는 각각 카트라이더의 정영석 노리온소프트 대표, 스페셜포스의 박철승 드래곤플레이 부사장이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